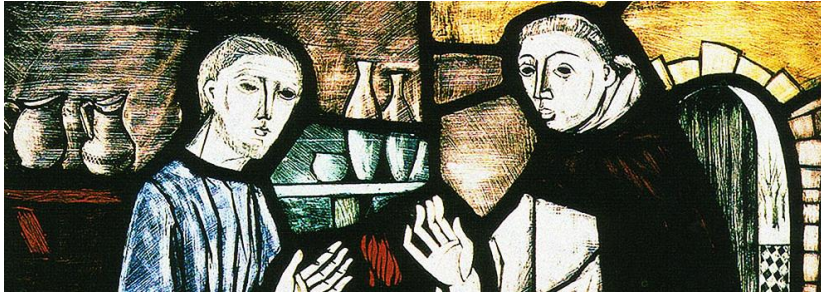


2018년 성 도미니코 축일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 도미니코의 자비와 우리의 자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도미니코는 자신의 하느님 체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도회를 설립하기 한참 전인 아직 젊었을 때부터 하느님의 이 자비를 깨닫고 자신에게도 이 자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의 첫 전기를 쓴 삭소니의 조르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주 하느님께 특별한 청을 드렸다. 그것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게 하는 참된 사랑(사랑은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을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데에 온 힘을 다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는 스승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동정심, 자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기를 썼던 베드로 페란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는 자비가 점점 자라나, 다른 이들의 비참을 자신 안에 느끼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에는 그것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팔렌시아에서 그가 학생이었던 대에 큰 기근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굶주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곤궁함을 본 도미니코는 복음 말씀에 따라,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주 필요한 것이었던 책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모범은 귀족들과 부자들, 스승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이의 관대함을 보고 자선을 시작하여, 인색함과 미지근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정심은 그의 삶 전체의 특징이었고 또한 세상을 위한 자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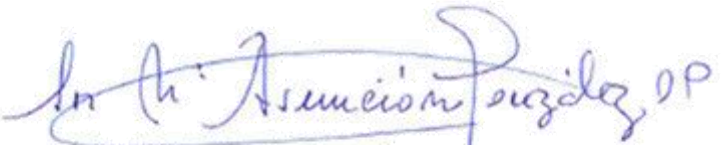
도미니코는 진리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실업자에게 일을 주고 떠돌이에게 집을 주는 것이 더 긴급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는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이지만,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관계를 길러가야 하며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고 고아들처럼 살아가는 것, 하느님과 또한 모든 사람들과 한 가족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삶을 괴로운 것이 되게 하며 많은 경우 의미를 잃게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며 서로 형제라는 데에서부터 진정한 진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이 나오게 됩니다. 소외, 배척, 절망에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롭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알지 못한 사람이며 그 자비를 얻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인 우리들은 이 하느님의 선물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메시지나 다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미니코처럼 하느님에 대한 목마름을 느꼈다면, 함께 성서 안에서 그리고 신문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길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과 우리가 찾아 나서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 하느님을 전한다면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나누듯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옹을 보냅니다.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